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The Elasticity Estimation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저자 (Authors)	전승훈, 김진 Seung-Hoon Jeon, Jin Kim
출처 (Source)	문화경제연구 18(1) , 2015.4, 3-21(19 pages) Review of Culture & Economy 18(1) , 2015.4, 3-21(1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문화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5430
APA Style	전승훈, 김진 (2015).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문화경제연구, 18(1), 3-21
이용정보 (Accessed)	포항공과대학교 141.***.140.45 2020/02/23 15: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전 승 훈** · 김 진***

목 차

- I. 서 론
- II. 기존 연구
- III.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 IV.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소비지출의 주요 특성을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문화소비의 특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실증적으로 문화소비지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분위별 문화서비스 지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격차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181로 추정되었으며, 관람시설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경우 2~4분위에서 아주 탄력적이었으나,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경우 3~5분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분위는 유의한 음의 탄력성을, 2분위는 유의한 양의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가계의 문화소비지출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 모두에서 2~3분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1분위와 4.5분위는 아주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소득분위별로 탄력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소득 분위별로 상이한 정책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격 정책보다는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제형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 문화소비지출, 문화서비스,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문화향유

* 이 논문은 문화경제학회 2014년도 추계정기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으로, 저자는 학술대회 토론자들과 문화경제연구 심사자들의 유익한 지적과 제언에 감사를 드린다.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저자, jsh1105@daegu.ac.kr

***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신저자, jkim@dongduk.ac.kr

논문제출일: 2015년 2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5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15년 4월 30일

I. 서 론

2014년 5월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4분기 가계 동향’ 발표에 의하면,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 속에서 오락·문화비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5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비 부문이 전체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오락·문화비 부문의 세부항목을 보면, 영상음향기기부터 단체여행비까지 20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각종 기기구입 및 수리 등에 4만 1,112원을, 서적구입에 2만 5,449원을, 기타인쇄물과 문구 구입에 9,530원을 지출하고, 운동 및 오락서비스에 1만 5,186원을, 문화서비스에 2만 8,814원을, 단체여행비에 2만 2,87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만 1,074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련 소비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창조경제의 수단의 하나로 문화활동이 거론되고 문화융성은 그 자체로 국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주요 정책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구호성 또는 장기적 비전으로서의 문화예술분야 활동의 합목적성에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예술 관련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적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서비스의 향유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그 필요성에 대한 간과에도 있겠으나 문화서비스 자체의 특징에도 있겠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서비스는 일회성이 강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향유행위가 결정될 수 있는 반면 또한 오락·문화·예술의 스펙트럼에서 전체적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의 소비가 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산업적 분석과 문화향유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가계의 문화소비지출의 특성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하게는 가계 문화지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며 문화서비스지출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향후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시론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소비지출의 주요 특성을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문화소비의 특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실증적으로 문화소비지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분위별 문화서비스 지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격차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문화서비스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III장에서 우리나라 가계 문화지출의 변화추이를 다각적으로 고찰한 후, IV장에서 본고의 주요 공헌인 문화지출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수행한다. V장에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기존 연구

문화서비스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과연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 특히 가격탄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연구되지 않았다.

실증연구는 국내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비목분류상의 교양·오락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 여가 또는 위락서비스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Dardis and Soberon-Ferrer(1994)는 미국의 여가지출에 미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가지출의 유형들을 고찰하고 여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허지정·최막중(2009)는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허지정·최막중(2009)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문화의 선택재적 특성과 문화소비의 소득효과 및 가격효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문화소비는 필수재와 달리 삶의 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문화인프라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는 문화바우처사업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제4차(2010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바우처 대상가구가 비대상가구보다 5만원 정도 더 많이 문화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화서비스 대상의 바우처식 보조금의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문화비 지출을 유도하였으리라 판단되지만 분기별 문화서비스 지출액이 평균 3만원이고 연간 지출액이 12만원 정도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5만원 추가지출의 효과는 정량적으로 과대추정된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변송·이의섭(1995)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문화활동 시간 및 문화소비지출의 양상을 분석 보고하였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3년 자료를 중심으로 월평균 교양·오락비 소비지출을 근로자가구와 봉급자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일간신문, 잡지, 도서 및 기타인쇄물, 음반, 극장입장료, 시청료, 관람료 등 17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최근 자료와 좀 더 변경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재호·송건섭·김도희(2010)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에 대한 답론을 제기하였고 문화정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전국자료를 중심으로 소비향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채원호·손호중·박병일(2004)는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전체 인구에 대한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하고 소득분위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Ⅲ.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1. 자료

본 장에서는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1인가구 포함 전국가구로 확대되어 구축된 2006~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문화소비지출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비지출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 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12개 부문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이중 오락문화 분야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등으로 중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가계지출 항목 중 가계의 문화 향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비지출 항목은 문화서비스이다. 문화서비스 지출은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 중에서 ‘영화, 연극, 콘서트, 서커스, 기타 공연 등의 입장료’를 의미하는 ‘공연 및 극장’항목과 ‘국립공원, 전시관, 유적지 등의 입장료’를 의미하는 ‘관람시설’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문화서비스 지출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이때 전체 가구의 월평균지출 규모를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수’를 측정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 실질가치로 전환하였다.

〈표 1〉 가계 문화서비스 지출 항목

□ 문화서비스	- 전시시설, 공연시설, 방송수신료, 문화용품의 대여료 등을 의미
○ 공연 및 극장	- 영화, 연극, 콘서트, 서커스, 기타공연 등의 입장료
○ 관람시설이용	- 국립공원, 전시관·유적지 등 입장료
○ 독서실 이용	- 독서실, 도서관 등의 이용료
○ 문화강습	-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요리, 바둑, 스키 등 여가시간을 위한 학원 및 학교이외의 개인 또는 그룹레슨은 ‘문화강습’에 분류
○ 콘텐츠	- 부록이 아닌 별도로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기록매체
○ 방송수신료	- TV수신료, 위성방송수신료, 케이블TV(CATV) 등의 방송수신료 항목에
○ 기타문화서비스	- 분류되지 않은 기타 문화 관련 서비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영화관람료, 공연예술관람료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공연 및 극장’ 항목의 물가지수로, 전시관입장료 항목을 ‘관람시설’ 항목의 물가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2. 가계 문화 지출의 변화

〈표 2〉는 2006~2013년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1인당 월평균 경상소득은 2006년 101.3만원에서 2013년에는 116.2만원으로 연평균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06년 67.6만원에서 2013년 72.2만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금액은 ‘공연 및 극장’ 관련 서비스 지출이 2006년 1,230원에서 2013년 1,580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 ‘관람시설’ 이용 서비스 지출은 2006년 170원에서 2013년 320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하였다.

〈표 2〉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

(단위 : 백원, %)

	경상소득	소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지출	공연·극장	관람시설	총지수	공연·극장	관람시설
2006	10,131.9	6,762.6	12.3	1.7	88.07	85.27	104.50
2007	10,578.5	6,961.2	12.4	1.7	90.30	87.55	105.76
2008	10,561.1	6,870.1	12.3	1.5	94.52	89.09	104.04
2009	10,365.5	6,788.3	12.3	2.1	97.13	93.99	102.65
2010	10,746.7	7,050.2	12.3	2.0	100.00	100.00	100.00
2011	11,012.2	7,155.6	13.5	2.6	104.00	100.56	96.90
2012	11,444.1	7,213.5	14.8	3.2	106.28	100.88	98.80
2013	11,623.3	7,219.9	15.8	3.2	107.67	101.99	101.18
연평균 증가율	2.0	0.9	3.6	9.0	2.9	2.6	-0.5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은 경상소득이나 소비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규모가 아주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 ‘공연극장’ 서비스 지출은 경상소득 대비 0.136%, 소비지출 대비 0.219% 수준이다.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은 경상소득 대비 0.0285, 소비지출대비 0.04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연 및 극장’의 소비자 물가수준은 2006~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였고, ‘관람시설’의 소비자 물가수준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5%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비자물가수준은 연평균 2.9% 상승하였다.

<표 3>은 소득분위별로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2013년 기간 중 소득2~4분위의 ‘공연 및 극장’ 서비스지출이 연평균 4%이상 증가하고,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한데 비해, 소득 1분위의 경우 ‘공연 및 극장’ 서비스지출이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관람 시설’ 서비스 지출 역시 4.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의 경우 ‘공연 및 극장’ 서비스가 연평균 2.4%, ‘관람시설’ 서비스가 연평균 5.9% 증가하였다.

〈표 3〉 소득분위별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

(단위 : 백원, %)

		경상소득	소비지출	공연 및 극장 서비스 지출액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액
1분위	2006	3,859.2	4,588.6	5.0	0.5
	2007	4,003.5	4,703.8	4.2	0.5
	2008	4,190.1	4,935.1	5.4	0.3
	2009	3,925.5	4,703.0	6.0	0.6
	2010	4,056.7	4,965.1	4.5	0.4
	2011	3,996.6	5,039.7	3.7	0.6
	2012	4,177.3	5,087.1	4.0	1.1
	2013	4,121.7	4,990.5	4.6	0.7
	연평균증가율	0.9	1.2	-1.2	4.8

		경상소득	소비지출	공연 및 극장 서비스 지출액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액
2분위	2006	6,353.5	5,338.5	7.3	0.8
	2007	6,561.9	5,494.9	7.7	0.8
	2008	6,672.8	5,543.2	7.7	0.8
	2009	6,680.2	5,349.3	7.9	1.2
	2010	7,201.5	5,711.3	9.7	1.1
	2011	7,229.6	5,959.1	9.8	1.5
	2012	7,492.9	5,939.4	10.2	1.8
	2013	7,541.8	5,920.0	9.7	1.7
	연평균증가율	2.5	1.5	4.3	11.8
3분위	2006	8,136.8	5,984.0	10.2	1.3
	2007	8,604.9	6,247.4	10.7	1.2
	2008	8,512.2	6,200.5	10.8	1.3
	2009	8,396.6	5,952.6	9.5	1.6
	2010	8,701.4	6,260.3	10.1	1.8
	2011	8,908.4	6,484.3	11.8	2.1
	2012	9,107.0	6,384.5	12.9	2.8
	2013	9,259.1	6,363.6	13.4	2.7
	연평균증가율	1.9	0.9	4.0	11.1
4분위	2006	10,434.3	6,913.8	13.3	1.9
	2007	10,915.4	7,069.6	13.0	2.0
	2008	10,853.0	6,942.5	13.1	1.8
	2009	10,643.7	6,942.8	13.2	2.2
	2010	10,965.5	7,152.1	13.0	2.2
	2011	11,118.5	7,204.4	15.5	3.0
	2012	11,523.0	7,296.5	16.4	3.8
	2013	11,609.7	7,327.8	17.8	3.8
	연평균증가율	1.5	0.8	4.2	10.6
5분위	2006	16,729.0	9,157.0	19.6	3.1
	2007	17,670.4	9,496.2	20.3	2.9
	2008	17,557.9	9,152.1	19.0	2.4
	2009	17,098.0	9,234.9	19.4	3.9
	2010	17,372.9	9,353.2	18.5	3.4
	2011	17,607.7	9,192.0	19.0	4.0
	2012	18,195.5	9,315.5	21.6	4.6
	2013	18,501.6	9,335.3	23.2	4.6
	연평균증가율	1.4	0.3	2.4	5.9

Ⅳ.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1. 분석방법 및 자료¹⁾

본 연구에서는 공연 및 영화관람 수요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요함수는 안종석(1996), 전승훈(2010) 등에 사용된 수요함수로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히 탄력적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도된다.²⁾ 우선 기본적인 수요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Q = f(Y, P, Q_{-1}) \quad (1)$$

Q 는 종속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공연 및 극장 관련 지출액과 1인당 관람시설 지출액이 사용되었다. Y 는 1인당 실질소득, P 는 상대가격, Q_{-1} 은 전기의 1인당 문화소비지출을 각각 의미한다. 즉 (1)식은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액이 소득과 상대가격, 그리고 전기의 소비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식을 추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수 선형(log-linear) 함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가격 변화에 따른 문화서비스 지출액의 장단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장기 수요함수와 단기 수요함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우선 장기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Q = \alpha + \beta \ln Y + \gamma \ln P + u \quad (2)$$

u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한편 (2)식은 장기수요함수여서 전기 소비와 주어진 가격과 소득수준 하에서의 최적 지출액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³⁾ 따

- 1) 분석방법은 안종석(1996), 전승훈(2010)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 2)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함수의 추정은 시장에서 판매된 판매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량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동시에 추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어진 가격 하에서 판매량은 그 가격 하에서의 수요량을 의미한다.(안종석, 1996)
- 3) 주어진 가격과 소득수준 하에서 최적수요량이 Q^* 이고 전기의 소비량 Q_{-1} 이 Q^* 와 다르다면,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량(Q)을 변화시켜 Q^* 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라서 (2)식에는 (1)식에 포함된 Q_{-1}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기 지출액을 포함한 단기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우선 가격이 P^* , 소득수준이 Y^* 와 같이 주어졌을 때 (2)식의 장기적인 지출액은 Q^*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Q^* = \alpha + \beta \ln Y^* + \gamma \ln P^* + u \quad (3)$$

전기의 지출액 Q_{-1} 이 Q^* 와 다를 때 소비수준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정되어 간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수준의 조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Q}{Q_{-1}} = \left(\frac{Q^*}{Q_{-1}} \right)^a, \quad a \geq 0, \quad (4)$$

만일 $a=1$ 이라면 $Q=Q^*$ 이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지출액을 한 번에 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a 가 1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면 이는 가격과 소득의 변화로 볼 때 지출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쉽게 조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때 지출은 조금씩 변화하여 점진적으로 목표지출 규모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a 가 1보다 크다면 소비자가 단기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나, 이후 과거의 지출규모로 회귀하게 됨을 의미한다. 습관성 혹은 중독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 가격변화 시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지출액이 반응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과거의 지출 규모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재화의 경우 a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4)식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정리하면 (5)와 같아지며, 이를 (3)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위첨자 *를 생략하면 (6)과 같은 단기수요함수가 유도된다.

$$\ln Q^* = \frac{1}{a} \ln Q - \left(\frac{1-a}{a} \right) \ln Q_{-1} \quad (5)$$

$$\ln Q = \alpha a + \beta a \ln Y + \gamma a \ln P + (1-a) \ln Q_{-1} + u \qua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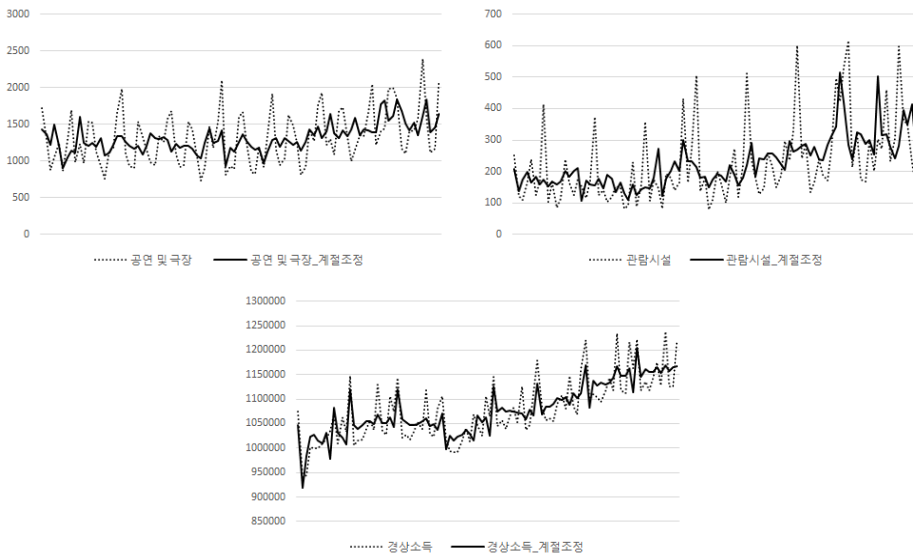
(6)식의 계수를 (7)과 같이 정의할 경우 (8)과 같은 추정가능한 단기수요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8)식은 소비자가 현재의 지출액 Q 를 최적지출 수준 Q^* 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격, 소득 및 전기의 지출액과 현재 지출액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alpha a = \alpha', \quad \beta a = \beta', \quad \gamma a = \gamma', \quad 1 - a = \delta' \quad (7)$$

$$\ln Q = \alpha' + \beta' \ln Y + \gamma' \ln P + \delta' \ln Q_{-1} + u \quad (8)$$

본 연구에서는 (8)을 추정한 후, 추정된 결과로부터 문화서비스 지출의 가격탄력성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한다. 식(8)의 추정으로부터 얻어지는 $\ln P$ 의 계수추정치 $\hat{\gamma}'$ 는 단기 탄력성을 나타내며, 장기탄력성 $\hat{\gamma}$ 는 $\gamma a = \gamma'$ 의 관계를 이용하여 $\hat{\gamma} = \hat{\gamma}' / \hat{a}$ 와 같이 계산한다. 이때 $\hat{a} = 1 - \hat{\delta}'$ 이 되는데, 이는 $1 - a = \delta'$ 에서 유도된다.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1인당 월평균‘공연 및 극장’서비스 지출액과 1인당 월평균 ‘관람시설’지출액이다. 이들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2006~2013년 월간자료를 통해 구하였으며, 제2장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액의 월평균자료를 가구원수의 월평균 자료로 나누어 준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실질가치화 하였다. 그리고 월별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절성을 고려하여 계절조정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조정 전 자료와 계절 조정 후 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계절조정 결과: 전체 가구

4) 수식에서 \bar{a} , $\bar{\alpha}$, $\bar{\delta}$, $\bar{\gamma}$, $\bar{\delta}$ 등은 추정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1인당 소득수준, 문화서비스의 상대가격, 그리고 전기소비량이다. 이중 1인당 소득수준은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경상소득의 월평균치를 가구원수의 월평균으로 나누어 준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치화 한 후, 계절조정하였다. 문화서비스지출의 상대가격은 해당 항목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한편 가계의 문화소비지출금액은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평균연령, 남성가구주 비중, 가구주 평균 교육연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 대수(가구원 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10%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만이 분석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모든 추정은 전체 가구 및 소득 5분위별로 이루어졌다.

2. 수요함수 추정결과

<표 4>는 ‘공연 및 극장’ 문화서비스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의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제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분위의 경우 가구주 평균연령과 대수(가구원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으며, 3분위의 경우 남성가구주 비중이 10%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비중이 유의한 양의 부호를, 5분위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남성가구주 비중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경상소득)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1.181의 값을 가지며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 각각 1.572, 2.496, 2.08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득 3분위로 나타났다. 공연 및 극장 관련 소비지출의 단기 가격탄력성을 의미하는 대수물가지수의 추정계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0.825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10% 수준으로 낮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분위와 3분위는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1분위의 경우 -4.199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405와 -1.790의 값을 가지며, 5%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기 지출액의 경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소득분위별 추정에서는 4분위를 제외하고는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가계의 문화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결과: 공연 및 극장

	전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수항	-11.670 *** (3.123)	20.261 ** (9.833)	-15.388 *** (4.262)	-30.027 *** (6.741)	-25.576 *** (8.321)	-1.839 (6.646)
대수(경상소득)	1.181 *** (0.244)	-0.625 (0.728)	1.572 *** (0.343)	2.496 *** (0.491)	2.083 *** (0.612)	0.705 (0.460)
대수(소비자물가지수)	-0.825 * (0.443)	-4.199 *** (1.309)	0.773 (0.719)	-1.297 * (0.657)	-1.405 ** (0.635)	-1.790 *** (0.588)
대수(전기지출)	0.336 *** (0.090)	0.192 * (0.100)	0.161 (0.102)	0.175 * (0.100)	0.235 ** (0.100)	0.084 (0.105)
가구주평균연령		-0.095 *** (0.027)				0.034 * (0.020)
가구주남성비중				2.062 * (1.252)		-3.344 * (1.735)
배우자있는 가구비중					2.468 ** (1.170)	
대수(가구원수)		-3.158 *** (1.079)				
R-squared	0.488	0.254	0.329	0.419	0.369	0.264

주: ()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는 ‘관람시설’ 문화서비스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의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주 평균연령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는 3분위의 가구주 평균연령과 배우자있는 가구비중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며, 4분위의 배우자 있는 가구 비중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경상소득)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분위별로 볼 때에는 3~5분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 1분위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그리고 2분위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0.814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10% 수준으로 낮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와 3분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1분위, 4분위, 5분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기 지출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

위별로 볼 때에도 1분위와 2분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3분위는 1%수준에서 4분위, 5분위는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계의 문화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결과: 전시 및 관람 시설

	전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수항	-3.720 (8.903)	52.428 ** (23.183)	-47.996 ** (21.929)	-11.908 (21.135)	-32.018 (23.042)	-6.882 (13.157)
대수(경상소득)	-0.459 (0.768)	-3.823 ** (1.818)	3.904 ** (1.641)	0.285 (1.624)	2.349 (1.626)	0.785 (0.912)
대수(소비자 물가지수)	-0.814 * (0.444)	-4.156 *** (1.204)	-0.375 (0.993)	-0.798 (0.549)	-1.495 *** (0.450)	-1.437 *** (0.354)
대수(전기지출)	0.086 (0.105)	0.099 (0.102)	0.073 (0.104)	0.269 *** (0.096)	0.220 ** (0.106)	0.245 ** (0.098)
가구주평균연령	0.197 *** (0.063)			0.193 ** (0.073)		
배우자있는 가구비중	7.881 *** (2.184)			4.120 ** (2.001)	4.355 * (2.389)	
R-squared	0.683	0.131	0.366	0.526	0.503	0.367

주: ()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탄력성 추정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서비스 수요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우선 수요함수 추정결과 중 대수(경상소득)의 추정치는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하며, 대수(소비자물가지수)의 계수는 단기가격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기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계수와 단기가격탄력성 수치를 이용하여 앞서 수식(7)에서 제시한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가격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표 6>은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과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를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1.181로 추정되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10% 증가할 때 공연 및 극장 관련 소비지출이 약 11.81% 증가함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집

단의 경우 공연 및 극장 관련 소비지출이 소득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 하위 20% 집단은 소득 변화와 무관하게 공연 및 극장 관련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반면, 소득 상위 20% 집단은 소득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공연 및 극장 관련 소비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 2~4분위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10% 증가할 때 공연 및 극장관련 소비지출이 15.72%, 24.96%, 그리고 20.8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할 때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즉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소비지출이 가구의 경상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는 달리, 관람시설은 소득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3.823으로, 소득 2분위는 3.904로 유의하게 추정된 반면, 소득 3~5분위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가구의 경우 소득변화와 무관하게 관람시설 소비지출 수준을 일정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1분위 가계에게 관람시설 소비지출이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 때 다른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람시설에 대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격탄력성은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에 대한 소비지출의 추정결과가 아주 유사하였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4분위, 5분위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이 모두 -4.199로 추정되었고, 4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 -1.405, 장기탄력성 -1.837로, 그리고 5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 모두 -1.790으로 추정되었다.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 역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볼 때 1분위, 4분위, 5분위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이 모두 -4.156으로 추정되었고, 4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 -1.495, 장기탄력성 -1.915로, 그리고 5분위의 경우 단기탄력성은 -1.437, 장기탄력성은 -1.904로 각각 추정되었다.

이상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는 중산층 이하 가계의 문화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가격정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상위 40%의 경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가격탄력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1분위의 경우 문화소비지출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더라도 실제 문화소비지출의 증가규모는

아주 작은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정책으로 인한 문화소비지출의 증가효과는 크지 않게 된다.

〈표 6〉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단기탄력성	장기탄력성	
공연 및 극장	전가구	-	-	1.181
	1분위	-4.199	-4.199	-
	2분위	-	-	1.572
	3분위	-	-	2.496
	4분위	-1.405	-1.837	2.083
	5분위	-1.790	-1.790	-
관람시설	전가구	-	-	-
	1분위	-4.156	-4.156	-3.823
	2분위	-	-	3.904
	3분위	-	-	-
	4분위	-1.495	-1.915	-
	5분위	-1.437	-1.904	-

V. 요약 및 시사점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은 경상소득이나 소비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규모가 아주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 ‘공연극장’ 서비스 지출은 경상소득 대비 0.136%, 소비지출 대비 0.219% 수준이었고,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은 경상소득 대비 0.0285, 소비지출대비 0.044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문화서비스지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소득분위별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을 고찰한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우 ‘공연 및 극장’ 서비스지출이 연평균 1.2% 감소하고 ‘관람시설’ 서비스 지출이 4.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의 경우 ‘공연 및 극장’서비스가 연평균 2.4%, ‘관람시설’서비스가 연평균 5.9%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서비스 지출에서 소득분위간 격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연 어떻게 문화서비스격차를 이해하고 해결할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181로 추정되었으며, 관람시설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경우 2~4분위에서 아주 탄력적이었으나,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경우 3~5분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분위는 유의한 음의 탄력성을, 2분위는 유의한 양의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가계의 문화소비지출이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 모두에서 2~3분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1분위와 4,5분위는 아주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문화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입안할 때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격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2~3분위 가계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 1분위의 경우 문화소비지출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더라도 실제 문화소비지출의 증가규모는 아주 작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문화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같은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 우석진 · 김인유 · 정지운 (2014).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재정학연구』 7(1), 29-51.
- 이번송 · 이의섭 (1995). 서울시의 문화지표: 문화활동 시간 및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2), 155-170.
- 이재호 · 송건섭 · 김도희 (2010).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과 문화정책추진 방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14(2), 106-124.
- 채원호 · 손호중 · 박병일 (2004). 노인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구 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1), 195-219.
- 허지정 · 최막중 (2009).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5), 161-169.
- 손원익 · 박태규 (2012).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희준 · 김재필 · 윤정열 · 조만형 (1994). 『우리나라에서 문화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정책학회.
- 양혜원 · 최보연 · 한승준 · 조아라 · 정기은 · 김현철 · 안진성 (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2012).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해춘 · 안경애 (2012). AHP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평가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1), 25-49.
- 이흥재 (1997). 『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임영식 · 유제민 · 정경은 · 김윤나 · 양돈규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승훈 (2006).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경제현안분석 제7호, 국회예산정책처.

- 정문성 외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정숙 · 노명우 · 송도영 · 김세훈 · 조현성 (2006). 『OECD 주요 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II. 외국문헌

- ASFE(a soul for europe) (2013). *Public Expenditure on Culture as a Percent of GDP*.
- Dardis, R. and H. Soberon-Ferrer (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 of Leisure Research*, 26(4), 309-
- Gabor, Sonjjeni (2011). *Is there any economic influence on the cultural expenditure? A Framework of the UK cultural sector*, Jonko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Jonkoping University.
- Heller, Peter S. and J. Diamond (1990).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visited-The Developing Countries: 1975-86*, Occasional Paper No.69,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OECD (2005).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 _____(2005).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_____(2013).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Tait, Alan A. and P. S. Heller (198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Occasional Paper No. 10,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

[Abstract]

The Elasticity Estimation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Seung-Hoon Jeon* · Jin Kim**

This paper studies the properties of culture expenditures in Korea, especially the elasticity estimation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We focus on analyzing the empirical determinants of culture expenditure and the 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rather than delve theoretically into the properties of culture expenditures. Furthermore, we observe and evoke the “culture divide” issues through the properties of culture expenditures in the dimension of income classific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culture expenditures in performance and theatre is 1.181, while that in venu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culture expenditures in performance and theatre are elastic for the second, third, and fourth groups, the estim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first and fifth groups. For the expenditure in venue, the first group has a significant negative elasticity and the fifth group has a significant positive elasticity, though the estim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second, third, and fourth groups. The estimation result for the price elasticity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in performance, theatre, and venue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shows that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are not sensitive to change in price. With respect to the dimension of income classifications, the price elasticity is elastic for the first, fourth, and fifth groups, while it is insignificant for the second and third groups.

Therefore, the policy would be different over the dimension of income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household culture expenditures. Furthermore, the expansion of direct culture enjoyment through culture vouchers would be more effective for the increase in culture expenditures of the low-income groups rather than would price policy.

Key Words : Culture Expenditure, Culture Service, Income Elasticity, Price Elasticity

* Professor, Daegu University, jsh1105@deagu.ac.kr

**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jkim@dongduk.ac.kr